

생애구술을 통해 본 중국 할빈지역 조선족의 주거의 사용

- 주거의 사용과 생활문화의 동화 및 문화접변을 중심으로 -

Use of Housing through Oral Life History of Korean Chineses in Harbin, China

- Focused on use of housing,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홍형옥*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 Hee Univ.

Professor : Hong, Hyung-Ock

<Abstract>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designed to explore the use of housing among Korean Chinese people in Harbin, China. Focusing on the use which based on the epistemology of housing adjustment, this was particularly designed to examine its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on the way of life course, it employed the in-depth interview on the oral history of 5 interviewees in their 60s and 70s, individualized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y 28 to 31 in 2010. Key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ree market reform in China resulted in privatization that allowed respondents to become homeowners, and the ownership was viewed as part of family asset centered upon a sense of solidarity.
2. Although homeowners in multi-story houses were responsible to decorate interior spaces, the common features in using interior spaces were found: entrance had no thresholds; kitchen was small, lack of storage cabinets, tile-flooring; washers were installed inside bathroom; and newly built apartment didn't have proper space to store Korean fermented foods. It was observed that housing adaptation outweighed housing adjustment.
Those who used to live in Chinese houses with indoor-wearing-shoes or Russian houses with indoor-wearing-slippers were receptive to the use of dining table and bed, and the community heating system discouraged the use of individual electric water heater because of high electricity cost.
3. In daily life, eating habit wasn't much changed to the Chinese style, meals were shared, dish sterilizer was popular, and Kimchi fridge wasn't used.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culture, such Korean traditions as ancestral rites and bedroom allocation tradition faded away, but traditional family values remained unchanged.

In conclusion, Korean Chinese people experience normative housing deficits and adaptation selectively incurred. It's implied that residential design meets the needs resulting from the dual culture in terms of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주요어(Key Words) : 생애과정(life course), 조선족(Korean Chinese), 주거소유(home ownership), 주거조절(housing adjustment), 주거의 사용(use of housing), 동화(assimilation), 문화접변(acculturation)

* 주저자·교신저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구술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 변화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애과정 접근법의 유용성에 있다.

질적 연구자인 Janesick(1994: 215)은 “생활의 경험과 조사대상 개인이 무시되는 것은 개인을 다루는 방법론 상의 문제이다. 개인을 숫자로 통합된 양적 연구, 혹은 그룹에 통합된 상태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면서 우리는 실생활의 경험에 대한 이해로부터 유리되었다”고 주장하였다(Reiter, 2009: 239에서 재인용). 그런데, 생애과정 접근은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모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연구관점에서 기여하는 바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와 다른지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Reiter, 2009).

생애과정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또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과 가족성원의 삶과 사회단위로서의 가족의 생활과 공간이 시간과 역사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것을 맥락적, 과정적, 역동적으로 모두 분석한다.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의 생애발달과 가족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발달을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심리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첫째,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적인 시간의 틀(시간적 맥락), 둘째, 개인과 가족의 사회생태학(사회구조적 맥락과 의미의 생성), 셋째, 개인과 가족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유계숙 외 2인, 1999).

현재 70-80세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생애과정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근대화 과정이 녹아 있고, 산업화와 기술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의미변화, 욕실과 위생, 식품저장과 냉장고, 부엌, 작업대, 난방방식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적응 등에 대한 주거 사용의 변화 연구가 가능한 세대들이다. 전통주택에서 현대의 초고층아파트에 이르기 까지 주거유형의 변화를 공간사적으로만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생애과정을 통해 미시적으로 읽어낼 때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그에 따른 공간과 시설 설비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부조화를 겪으며 개인과 가족이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

심리학적 담론에서 '의미'는 의도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주거의 '사용'은 행동을

조장하는 관념이나 대상물의 이용이라는 명백한 행동을 암시한다. '의미(meaning)'가 정의적(affective)이라면 '사용(use)'은 효율적인 행동을 명시한다. 환경의 요소들이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지시하고 무언가를 암시하거나 상징하거나 할 때, '사용'은 효율적 반응과 정의적 반응 모두를 포함한다. '의미'가 의사소통적 관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의미'는 '사용'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결국, 주거공간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거주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Arias,1993)가 있다.

주거의 사용은 사회집단,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며 같은 집단에 속한다하더라도 동질적 집단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주거의 발전이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간은 중요한 변화요소가 되며, 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변화하면 주거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하다(Arias,1993).

본 연구에서는 중국 흑룡강성 할빈 지역 조선족의 주거의 '의미' 편(홍형욱, 2010)에 이어 주거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특히 주거의 사용을 위한 소유, 주거시설설비의 사용과 생활문화의 동화 및 문화접변에 따라 나타나는 주거조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한다. 이는 할빈지역 조선족의 현재까지의 주거 사용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그들의 주거의 '사용'을 주거의 '의미'(홍형욱, 2010)와 연동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변화에 맞추어 해외동포의 주거생활 복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할빈 지역 한인 동포들이 한국동포 최대거주지인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밝혀냄으로써 해외동포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주거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조절이론(Morris and Winter,1975)의 인식론 입장(홍형욱, 2010)에서 중국의 근현대를 살아가는 5명을 심층면접하여 생애구술자료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할빈지역 조선족의 주거의 '사용'과 그 변화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생애구술자의 주거의 사용은 시대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되고 조절되어 왔는가를 주거소유, 시설설비의 사용,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접변 과정을 통해 알아보려 하며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구술자의 주거소유의 변화를 통해 본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구술자의 주거시설설비의 변화를 통해 본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구술자의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접변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은 어떠한가?

II. 중국 동북3성 조선족의 주거의 사용1) 특징과 생활문화

1. 길림성 조선족의 주거의 사용 특징

할빈지역 주거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동북 3성의 주거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홍형욱, 2010)에서 나타나지 않은 주거의 사용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변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 공간(김종영, 2002)을 보면,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조선족의 주식이 밥이고 부식으로 국, 김치, 된장을 먹는 것은 그대로이지만 점차 영양가가 높은 음식, 취사설비의 가스화, 전기화, 식생활의 사회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사내용도 조선음식을 주로 먹는 세대가 78.4%, 한족 음식 혼용이 17.6%, 한족음식 위주가 4% 정도로서 김치는 집에서 담그는 가정이 많았지만(68.9%), 된장은 집에서 담그는 경우가 37.8%에 지나지 않았다. 가전제품은 냉장고 91.9%, 전기밥솥 97.3%, 전기 오븐 21.6%, 가스렌지 90.5% 였고 취사연료도 가스와 전기를 주로 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취사 및 식사공간의 구성형태가 조선족 집합주택의 평면형식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김종영, 2002)라는 것이며, 집합주택도 초창기에는 정주칸 식이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부엌과 정주칸이 분리되어 싱크가 설치되는 주방의 입식화가 나타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온돌사용이 금지되고 욕외저장고인 욕이 제공되지 않자 주방형이 주가 되며, LDK형은 온수바닥 난방이 도입되고 주방이 입식화 된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길림성의 방 한 칸은 3, 4명이 함께 잘 수 있는 크기로 어른 방, 아이 방으로 구분 사용하며 방과 부엌의 바닥재는 타일이며, 겨울에는 석탄, 여름에는 프로판가스로 난방과 조리를 하였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석탄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바닥 난방을 시작하였다(이영심 외, 2007).

실내생활(이영심 외, 2007)을 보면, 거실에서는 가족 단란 손님접대, 대가족의 식사, 손님취침, 다림질 등이 이루어지고, 부엌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러한 공간사용은 변화될 조짐

이 있다. 취침은 주로 입식으로, 다림질은 좌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한 손님은 좌식으로 공식손님은 입식으로, 가족식사는 입식으로 손님과의 식사는 좌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좌식이 가능한 것은 바닥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층집에는 온수바닥 난방이 보편화되면서 나무 바닥재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엌은 닦아내기 쉬운 타일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이한 것은 아파트의 경우도 신발 착용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거실의 한쪽에 신발장을 두거나 앞뒤 배란다나 현관문 앞에 신발장을 두고 사용하였는데 따로 파진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신발장으로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중앙에서 난방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급되고 일괄적으로 끊어진다. 그러나 동북 3성은 모두 추운지역이어서 공급기간 전후에도 난방이 필요하여 전기장판을 이용하기도 한다.

2. 흑룡강성 할빈지역 주거 사용의 일반적 특징2)

흑룡강성은 동북3성 중 가장 북쪽에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출신이 많다. 4만 5천여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할빈시 지역은 특히 경쟁적인 직업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경향(홍형욱, 2010)이 있다.

할빈지역의 일반적인 주거 사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80년대에 지은 층집이 아직도 가장 많은 재고(사진 1, 그림 1 참조)를 차지하고 있는 할빈 지역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실내 특징을 갖는다.

첫째, 추운지역이어서 외부출입 현관문이 안과 밖으로 열리는 2중 현관문(사진 2)이며, 벽이 50cm 정도로 두껍다. 문틀도 없이 시멘트만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실내장식을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좌식을 병용하므로 중국인들보다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요즈음에는 마루를 많이 깔지만 전에는 바닥에 페인트를 바르고 바닥이 차므로 카페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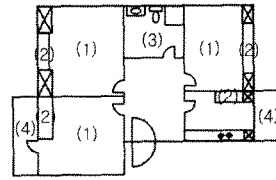
둘째, 신을 신고 벗는 현관이 따로 없고 신을 안쪽 현관문 옆에 벗어 놓거나(사진 2) 한쪽에 선반을 두어 수납한다. 현관문을 열면 곧 각 실로 통하는 공간이며, 맞은 편에 화장실

2) 할빈지역의 주거시설설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할빈시의 도리구(道里區) 안승가(安升街) 85호에 소재한 조선민족예술관을 1차 방문(2010.5.25)하여 노인회 회장 및 직원들과 면담결과 할빈 지역의 일반적 주거상황에 대한 진술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며, 제공된 사진도 구술자들의 집이 아니고 할빈시에 현재 가장 많은 유형의 일반적인 집의 모델이 될 만한 집을 물색하여 촬영한 것임

1) 조선족 주요 거주지를 일컬어 흔히 동북3성이라고 하지만, 주거의 사용에 대해서 요녕성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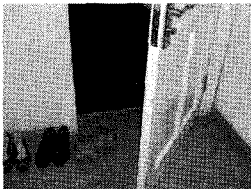
<사진 1> 1970-80년대 건축된 층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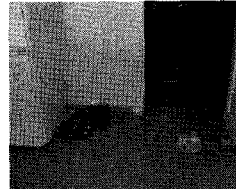
- (1)방
- (2)라디에터
- (3)전기온수기
샤워기,세탁기
- (4)베란다

(벽두께 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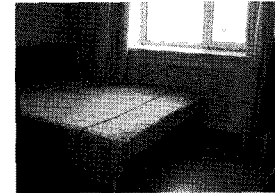
<그림 1>1970년대 말 층집 예(66㎡)



<사진 2>1970년대 말 층집의 이중현관문



<사진 3> 출입문 옆 냉장고



<사진 4>창문 밑의 라디에터

이 있는 이 곳에 식탁을 놓고 식사공간으로 이용하거나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부엌이 좁을 경우 이 곳에 식탁과 냉장고(사진 3)가 놓인다. 각 실 중 하나를 거실[客廳]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이 많으면 모두 침실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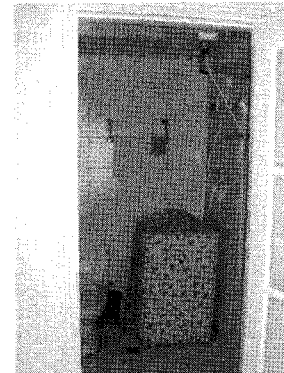
셋째, 층집의 창밀은 거의 라디에터(사진 4)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라디에터 위에 창문이 설치되어 개방성이 적다. 베란다 창문도 벽체위에 설치되어 개방성이 적다.

넷째, 난방은 시에서 일괄 공급하기 때문에 온수사용은 개별온수기를 사용해야하므로 샤워시설(사진 5)만 두고 세탁기도 화장실에 둔다. 욕조가 있는 경우에는 떼어내고 세탁기를 둘 공간을 확보한다. 전기, 가스 값이 비싸 온수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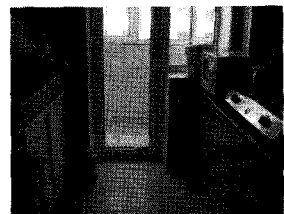
다섯째, 중국인들의 생활양식 상 아침은 두유, 죽이나 떡으로 간단히 식사하고,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볶음채 한 두 가지 정도를 한 개의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므로 집의 규모에 비해 부엌(사진 6)도 좁고 수납장이 좁아 조선족에게 맞지 않는다. 냉장고는 작은 것을 부엌에 두기도 하지만 좀 크면 부엌밖에 둔다.

이상의 특징 중 몇 가지는 혹한기를 견뎌야하는 할빈의 특이사항이지만, 현관설치와 부엌과 수납장 규모에 대한 것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조선족이 느끼는 불만족 사항(이영심 외, 2007)과 유사하다.

1970-80년대 층집에 샤워기가 있는 것은 중국의 시설설비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나중에 가설된 것으로 개별 전기온수기 사용 시의 전기료를 생각할 때 집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어렵다. 세탁기의 배수는 세탁을 할 때마다 배수구에 접속을 해야 하고, 샤워를 할 때 배수문제로 바닥이 흥건해 지며, 샤워 시 세탁기에 물이 묻으므로 커버를 씌워 두고 있는 것(사진 5)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나중에 화장실에 세



<사진 5>화장실(세탁기,전기온수기가 천장에 붙어 있고,샤워기가 있다)



<사진 6>1970년대 말 건축된 층집의 좁은 부엌과 베란다

탁기와 전기온수기 및 샤워기가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다.

3.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접변

한국동포의 주 거주지인 동북3성 중에서 길림성은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 조선족 최대 거주지이다. 따라서 할빈지역과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인 공통점도 있겠으나 이북출신이 많은 연변지역과는 본국의 출신지역이 다른 데 따른 생활

문화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할빈은 흑룡강성의 성도로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쟁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고, 또한 가장 북쪽의 러시아 접경 지역이어서 지역생태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다.

생활문화는 여러 다른 문화와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자연 환경 및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여러 다양한 하위문화가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은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식생활문화도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긴밀한 그물망 가운데 존속(조홍윤, 2003)하는 것이다.

생활문화는 동화(assimilation)와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문화접변이란 이주와 더불어 만나는 새로운 문화에 충격과 갈등을 겪으며 서서히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면서 문화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장섭, 1993)이다. 원래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과 집단이 지속적으로 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본래의 문화형태가 한 집단 또는 양쪽 집단에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정의(Redfield, Linton, Herskovits, 1936, 이장섭, 1993, 78-79에서 재인용)되었으나 간접접촉의 중요성,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 반작용 및 거부반응 등이 간과되었음을 비판하고 새롭게 역사적 상황의 고려, 인간의 적응의 동력을 이해하려는 사회심리적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접변은 일반화할 수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과 상태에 종속되는 문화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해외 이주민의 문화적 과정은 다음 5가지 모델로 정리된다. 첫째는 과거의 문화에 상응하는 행동양식 및 관습을 지속하려는 노력, 둘째, 이주한 사회에 접촉을 가지면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양상, 셋째, 이주한 나라에 완전한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양상으로 과거의 행동양식과 습관을 거부하고 이주국의 문화에 동화하려고 노력하는 양상, 넷째, 이주국의 문화에 부분적으로 동화하는 양상, 다섯째, 이주민 자신의 문화양상을 이주국에 이식하려는 양상이다(Greverus, 1978, 이장섭 1993: 81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화적 과정은 동화 혹은 문화접변으로 개념화되는데, 이 두 개념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종속적이지는 않다. 동화는 이주하려는 사회에 긍정적인 지향성을 나타내면서도 이민사회가 이주 집단의 동화를 수용하고자하는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따라서 해외 한인동포들의 동화는 국가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며, 이주민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여 자치구를 인정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동화과정은 그 양상을 달리한다. 즉, 이주민의 특수한 상황: 역사적 배경과 목적, 이주민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동화의 정도가 결정된다.

동화가 문화접변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동화과정에서 문화적인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와 문화접변이 동화의 전제로 파악되었을 때(이장섭, 1993)이다. 문화접변이란 접촉하는 두 집단 사이의 문화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 간의 상

호 문화변동 진행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동화와 구분된다 말하자면 문화접변이란 이주한 사회에 대한 의식적인 지향이나 문화적 동화현상 없이도 진행될 수 있고, 이주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없이도 가능한 문화과정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김치를 식탁에 올리고, 조선족이 기름으로 볶는 볶음채 요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문화접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민족집단이라는 가치와 힘의 논리에 따른 갈등, 부정적 선입관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완벽한 동화는 어렵고 동화는 한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주사회에서 동화과정은 민족적/인종적 출신성분, 직업의 종류와 지위, 소득, 동족 이주민과의 접촉 기회와 빈도(Goetze, 1976, 이장섭, 1993에서 재인용)에 따른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틀 지워져 있으나 개혁과 개방 아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춘절 이외의 전통적인 세시풍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또한 사회주의는 국민의 삶과 질에 막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방 자치가 비교적 잘되어 있어 생활문화는 전반적으로 건전하며, 중국속의 소수민족들은 나름의 전통생활문화를 영위하고 있고, 주변문화로서 중국 전체의 생활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서 조선족의 생활문화는 거주지나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 동화와 문화접변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해외 이주민 중에서 호주의 주생활 문화접변을 다룬 연구(조성희, 1996)를 보면, 좌식생활의 병행, 실내에서 신을 벗고 생활하는 행동양식, 주침실의 부부 전용으로의 사용, 가족실의 도입과 사용을 문화접변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민족자치주가 있기 때문에 동화보다는 문화접변의 개념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윤복남, 1997, 조복희 외 2005에서 재인용)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화접변의 수준은 언어, 사회적 활동, 문화적 행사, 민족에 대한 정체감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문화접변 수준은 양쪽문화를 선택하고 수정하여 주류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Lee, 2000; Santisteben & Mitrani, 2002, 조복희 외 2005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는 것을 문화적 동화과정이라고 하고, 새로운 시각의 문화접변의 개념이 끊임없이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의 시각으로 상대방 문화의 일방적 수용이 아닌 상호문화변동 과정을 강조(조복희 외, 2005)한다. 따라서, 할빈 지역 조선족의 생활문화는 문화접변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동화의 개념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족의 동화와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주류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학력이 높

을수록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와 민족보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나 직업을 통해 주류문화와의 왕래가 더 잦기 때문에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일 기회와 확률이 높으며, 동시에 민족의식을 보존함으로써 융통성있는 적응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주류문화에의 동화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Phinney, 1990, 조복희 외, 2005에서 재인용). 할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지위를 주요변수로 하고 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학력이 높아 직업을 가진 경험이 많은 점이 동화와 문화접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류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이 달라 소수민족의 문화접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지역생태학적 특성이 있다(이장섭, 1993). 중국내 조선족의 97%가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의 경우도 러시아 접경의 흑룡강성의 성도인 대도시 할빈지역 거주자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길림성 연변지역, 혹은 요녕성 조선족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은 이 지역생태학 변수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할빈/심양과 연변지역 조선족의 문화접변실태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심양/할빈지역 거주자가 가정내 언어 사용, 가정의 언어사용,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의 네 영역에서 모두 연변 조선족 보다 중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더 높은 동화정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의 경우 여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남한 방문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문화적 정체감과 자부심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국문화에의 동화정도가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중국어 실력이 문화접변의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조복희 외, 2005). 인구의 90%가 한족인 할빈지역에서 문화를 지키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주류사회 문화에의 동화와 문화접변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과 조사대상 개요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으로 생애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과 해석을 하는 질적 연구이며, 접근방법은 생애구술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주거의 사용과 조절을 들여다 본다는 점에서 생애과정 접근을, 주거만족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조절을 해나간다는 개념 틀과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거조절이론(Morris & Winter, 1978)의 인식론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술자들은 각기 1932년생(78세)부터 1941년생(69)세에

이르기까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점³⁾이 같을 뿐, 교육과 은퇴 전 직업 등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출신지역, 현재의 사회경제적 특성⁴⁾이 다르다.

구체적 구술내용은 구술자 개인과 가족에 관한 사행(은퇴 전 직업, 현 소득, 학력, 가족, 결혼상태 등), 그동안 살아온 집의 종류, 크기, 재료, 평면, 공간명칭, 한국과의 교류정도, 방의 위계, 살아온 각각의 주택가격, 현재주택의 구매가격과 실내장식비용, 현재의 매매가 및 각 주택 취득 당시의 사회정치 경제적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주거의 의미에 관한 연구(홍형욱, 2010)에서 일부 분석되었다. 주거의 사용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소유과정 주거시설 설비의 변화, 난방과 취사연료의 변화, 가전제품의 사용 시작 시기, 식생활, 침실사용과 공유, 의례생활 등 생활문화에 관련된 공간사용과 주거조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분석하였다.

구술자의 선정기준(홍형욱, 2010 참조)은 출신지역, 교육수준, 주거유형, 한국과의 교류정도, 경제적 계층 등이며, 이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출신지역은 주로 중국의 동북 3성, 농촌, 도시 출신자 등으로 다양한 주거경험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교육수준은 취업여부와 종사한 직업과 관련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집을 분배받은 시기 및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3) 그동안 살아 온 주거유형은 건축연대에 따라 난방방식과 시설설비 및 바닥 재료에 많은 차이⁵⁾를 보이기 때문이다.
 - (4) 한국과의 교류정도⁶⁾는 한국 왕래를 통해 주거의 사용
-
- 3) 구술자들은 1945년 일본의 패망, 공산주의교육, 1965년부터 10년간의 문화혁명, 1970년대 말 개혁개방과 1983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1995년의 주택배급중지와 더불어 주택매입을 주로 언급하였고, 산업화과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4) 현재 도시에서 한달 생활비는 3,000-5,000위안 정도이고, 노동에 종사하면 한달에 2,000위안을 벌기도 힘들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10,000위안 정도를 벌기 때문에 몇 년만 고생하면 도시에 집을 살 수 있어서 한국행을 많이 한다고 한다.
 - 5) 중국에서는 70년대부터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정지가 부업으로 바뀌는 입식화 과정을 거치고 1990년대부터 온수온돌로 바닥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LDK형이 많아졌고, 8층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7층 이하로 지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아파트가 많아졌다.
 - 6) 1983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조선족들은 한국 왕래를 많이 하였는데 80년대에는 응답, 녹음, 사향, 우황청심환, 편자황 등 주로 약장사를 하여 경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90년초 부터는 중국과 한국의 인건비의 격차가 커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많이 하였고,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대부분 돈 벌러 한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 조절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5) 경제적 계층은 그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유형이 다르며, 소유과정이 다르고,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접변 실태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준은 할빈의 도리구 안승가 85호에 소재한 조선민족예술관을 1차 방문(2010.5.25)하여 노인회 회장과 면담 결과 할빈 지역 노인들의 주거의 사용경험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유형을 압축한 결과(홍형욱, 2010 참조)이다. 1950년에 세워진 조선민족예술관에는 도서관, 민속박물관, 안중근의사기념관, 하얼빈조선족 백년사관이 있고, 할빈지역 1,500여명 노인회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어서 이곳을 통해 중국 조선족의 근현대 주거변화를 알기 위한 생애구술자를 모색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선정된 구술 예정자에게 의사를 타진 한 후 2010년 5월28일부터 31일 까지 1인당 2-3시간 동안 구술을 들었으며, 사전조사와 촬영 및 거주지 방문을 포함하면 총 10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생애구술을 하는 동안 이야기기가 끊임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년시절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현재의 주택까지 주거의 사용에 대한 구술을 들었다. 내용의 기록은 미리 작성한 대주제와 소주제에 조사자가 직접 받아 적는 방식이다. 질문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출생 후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구술한 내용을 보고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현재 할빈지역에 거주하며, 중국의 근·현대를 살아 온 구술자 5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KS씨(2010년 5월28일 오전 9-11시 인터뷰); 객관적 부유층, 평북출신, 1936년생, 사범대 졸, 교사로 은퇴, 1998년부터 초고층아파트 17-8층 2개 층에서 한족 아내와 이혼한 아들, 손녀와 거주.

J씨(2010년 5월29일 오전 -오후1시 인터뷰); 객관적 중간층, 함북출신, 1941년생, 대졸, 중의학 연구자로 은퇴, 2005년부터 큰 아들이 소유한 층집에 부부거주.

KY씨(2010년 5월31일 오전 9-11시 인터뷰); 객관적 중간층, 충청도 출신, 1934년생, 전문학교졸업, 약제사로 은퇴, 2003년 일본식과 한국식을 가미하여 층집을 내부 장식 후 현재까지 부부거주.

L씨(2010년 5월28일 오후 1-3시 인터뷰); 객관적 중상층, 남편 충청도, 본인 전라도 출신, 1932년생, 소학교 졸, 가정주부, 2008년부터 39층 초고층 아파트에 가정부와 둘이 거주.

P씨(2010년 5월29일 오전 9-11시 인터뷰); 객관적 서민층, 조부모 경북출신, 러시아에서 1939년 출생, 조선사범졸, 사무원으로 은퇴, 1991년부터 층집에 거주하다가 1995년에 매입, 현재까지 부부거주.

이들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성과 한족 및 한국과의 교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생애과정이 상당히 다른 5유형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 있는 무의식에 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주거소유의 변화와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

구술자들의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주거유형의 경험은 평집(중국집, 조선집, 러시아집)에서 층집으로, 층집에서 초고층 아파트로 변화하는 단계(홍형욱, 2010)에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효율적 분배를 위해 층집만을 지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평집에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구술자는 현재 모두 층집과 초고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소유의식은 중국 특유의 외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분배해 준 집은 아주 적은 임대료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 집처럼 쓸 수 있으므로 내 집이라고 표현하였고, 어떤 사람은 1995년 당시 직장으로 부터 분할식으로 매입한 시기부터를 내 집이라고 표현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원칙에 따라 직장에서 집을 분배해 주기 위해 1970-80년대 많은 층집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층집이 분배되었으나 1960년에 KS씨는 처음으로 독방을 배급받았고, 1967년에 러시아 집을, 1970년에 층집을 배급받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70년대 이전에는 방을 배급받거나 다른 유형의 집들도 배급되었다.

구술자들의 주거소유변화(표1 참조)를 보면, L씨는 교육수준이 낮고, 남편이 사업을 하여 직장을 가져 본적이 없지만 할빈에 와서도 1971년에 조선집을 700위안에 신축하여 살았는데 남편은 돈이 없어도 배짱으로 집을 신축하였다고 했고, 1995년에 처음 층집을 매입하였다.

1965년 모택동의 문화혁명과 1983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맞으면서도 집이란 직장에서 주는 거처이거나 포상(賚)으로서 재화의 의미를 가질 뿐, 가문과 지위의 표상이나 자아실현 등의 상위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층집 건축은 동등한 수준의 주택을 고르게 배분하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환이며, 1960년대까지는 주호 당 36㎡, 1978년부터는 46㎡으로 제한되었고, 1985년부터 50㎡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최금화, 2002). P씨는 1991년이 되어야 직장에서 40㎡의 층집을 분배를 받았는데, 1995년에 그 집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고, 최소한의 피호처로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P씨는 과거에는 너도나도 똑

같은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고, 현재도 내 집이고 따뜻하며 우리가 살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KY씨는 9m² 방 한 칸에서 시동생과 함께 살았고 너무나 좁은 집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어도 젊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별로 불행하게 생각지 않고 살았다고 하였다.

1995년 즈음 살던 집을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가치를 갖게 되었고, KS씨와 J씨는 집을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L씨는 성공한 자녀의 지원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자녀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표현수단이라는 상징의 의미가 강하고, KS씨는 사위의 효도로 인한 선물의 의미와 노후의 안식처로 '사용'의 의미(홍형욱, 2010)가 강했다. P씨는 사회주의 찬미자이기도 했는데 직장만 있으면 집도 주고 은퇴당시 월급의 75-80%를 주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1,050 위안, 남편이 2,358 위안을 받아 충분히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아프면 본인은 20%만 내고 국가에서 모두 지불하여 주고, 너도나도 사는 형편이 똑같으니 불만이 없고, 소수민족에게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대우를 잘해 주니 만족한다고 하였다. 일례로, 양식을 배급받던 1970년대에 한족은 밀가루만 주었지만 조선족은 밀가루 뿐만 아니라 쌀을 먹어야 한다면서 13.5kg씩 쌀을 배급해 주었다는 예를 들었다.

직장이 좋거나 직위가 되어야 집을 배급해 주었기 때문에

철도총공정사로 은퇴한 KS씨의 남편은 1960년에 이미 집을 배급 받았지만, 남편이 전지공장에 다닌 P씨는 1991년에서야 배급을 받는다. P씨는 조선사범을 나왔지만 교사가 월급도 적고 힘들어서 평생 사무원을 했으며, 당시는 교사보다 사무원이 좋았지만 현재는 교사가 좋은 대우를 받는 직종에 속한다고 하였다.

KS씨와 P씨가 직장에서 집을 분배 받은 시기가 무려 31년의 격차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그 이후 재산형성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KS씨는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1983년 퇴직하자 지하복장 매대를 배급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식당이 3개, 6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1995년에 1만7천 위안에 매입한 층집은 창고로 쓰고 있다. 1998년 250m²의 초고층 17-18층 2개 층을 쓰는 아파트를 130만 위안에 사서 60만 위안을 들여 실내장식을 하고 입주할 하였는데 현재 시가가 300만 위안 쯤 한다고 하였고, 해남도에 겨울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심천에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J씨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모두 집이 있고, 이 집들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자녀마다 130만 위안 이상의 재산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집을 잘 활용하여 투자효과를 보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L씨는 큰 아들이 성공하여 손녀명의로 집을 사주었는데 가정부와 둘이서 살고 있다. 생활비도 아들이 주는데 200m²나 되는 큰집

<표 1> 구술자의 주거소유와 주거의 사용

구술자	연대 주요 변화 현주거 계층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개 조 / 회 망 내용	
		일본패망		공산주의 모택동 교육 문화혁명			등소평 개혁개방	배급중단 매입가능				
KS씨	부유층 (주관적 중상층)	☆할빈거주시작				1970 ◎ 층집배급	1995 ◇ 층집매입	1998 ※ 초고층 아파트 250m ²				○ -최신실내장식 -라디에터파기 -전기바닥난방
J씨	중간층 (주관적 중상층)					1978 ◎ 층집 배급	1990 층집 포상	1995 ◇ 층집매입	2005 큰아들 소유 층집 거주 95m ²			△ -2집 합쳐 큰집 이사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
KY씨	중간층 (주관적 서민층)					1982 ◎ 층집 배급	1985 층집 배급	1995 ◇ 층집매입	2003 딸 소유 층집 거주 90m ²			X
L씨	중상층 (주관적 중간층)			1955 중국집 신축	1961 중국집 신축	1971 조선집 신축		1995 ◎◇ 층집매입	2008 큰손녀 소유 ※ 초고층 아파트 200m ²			X
P씨	서민층 (주관적 중간층)						1991 ◎ 층집 배급	1995 ◇ 층집매입 40m ²				X

개조계획 ○, 희망사항 △, 계획 없음 X, ◎ 층집거주시작
◇ 층집매입 ※ 초고층 거주시작 ☆ 할빈거주시작

현 주거계층-현재 살고 있는 주거유형만으로 본 계층
주관적 주거계층-구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계층

은 아들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표로서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며 누구소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셔야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사위를 잘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집을 잘 활용하는 미덕과 혈족끼리의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아들도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이 집을 사주었으며 자랑삼아 친구들을 많이 초대한다고 하였다. 1995년도에 매입했던 100㎡ 층집만 해도 중간층은 되지만 지금은 작은 며느리가 살고 있다. 아들이 사준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객관적 중상층은 된다고 보며, 아들의 성공을 사랑하는 것에 큰 낙을 느끼고 있었다.

구술자들은 길림성이나 요녕성 거주자들과 달리 조선집을 경험한 사람은 J씨가 52년도까지, L씨가 1971년부터 20년 동안 조선집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집과 강, 러시아집과 페치카를 경험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집의 규모는 20~90㎡에 이른다. 첫 번째 층집은 1970년부터 거주를 시작하여 40~100㎡에 이른다. 1995년부터는 모두 자기 소유거나 직계가족 소유의 층집 거주가 3명, 초고층 아파트 거주가 2명으로 그 규모는 40~250㎡에 이른다.

8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7층이 많이 공급되었는데, 할빈이 인구 940만명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신개발지와 재개발지에 초고층이 많이 공급되면서 부유층의 표상으로 초고층 아파트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현 추세이다. 거주자 중 KS씨는 1998년부터 이미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라디에터 난방이라서 2011년 전기 바닥난방으로 개조를 원하고 있었다. L씨는 온수바닥 난방이 음식물 저장에 문제가 있고, 배란다도 없기는 하지만 송화강가의 최고급 초고층아파트 거주를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였다. J씨는 건강이 나빠지면 아들과 합치면서 화장실 2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의 이사를 희망하였다. KY씨는 2003년 일본에 사는 사위가 딸 명의로 온수바닥 난방이 되는 층집을 사서 이사 시키면서 현관을 한국식으로 단차이를 두고, 일본식으로 화장실과 욕실을 구분하여 꾸며준 것에 대해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였다.

2. 주거시설설비 변화와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

구술자 KY씨가 1985년 살던 40㎡ 층집은 거실과 방 2개, 부엌, 변소만 있다고 하였다. KS씨가 1970년부터 살던 42㎡ 층집에는 현관문을 열면 거실 방 2개와 주방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세면기, 소변기, 욕조가 있었다고 하였다. 주거시설

7) 중국의 층집은 1960년대까지는 주호당 36㎡, 1978년부터는 46㎡까지만 지을 수 있었고, 1985년부터 50㎡이상으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최금화, 2002: 7-8) 46㎡에 욕조까지 있는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으나 구술자는 분명히 그렇다고 하였다.

설비는 집의 유형,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평집거주기에 농촌이나 산촌에서는 나무를 이용하였지만 도시에서는 대체로 석탄으로 난방을 하였고, 그 방식은 아궁이를 이용하여 구들난방, 캥 난방을 하거나 러시아집의 경우 페치카로 난방을 하였다. KS씨는 1970년도 층집에서도 천연가스로 취사를 하고 스팀난방을 공급받았으며, 실내에서 겨울에도 반소매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밖은 영하 30도 까지 내려가므로 솜저고리 위에 코트를 입고 외출을 하였다고 하였다.

반면에, P씨는 1981년 배급받은 층집에서도 석탄을 때서 물을 담혀 라디에터로 보내는 방식으로 개별난방을 하었다고 하였다. 할빈은 추운지역으로서 층집이 보편화되면서 지역단위로 난방을 하는데 11월에 난방을 시작하여 4월에 중단한다. 이는 일반 상가, 사무실, 호텔, 학교, 주택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이러한 난방공급 시스템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지만 더운 물을 쓰기는 용이하지 않다. 샤워기를 달고 그 자리에 세탁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기온수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샤워도 매일하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일 못하고 세수정도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족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1970-80년대에 지은 욕조가 있는 층집도 욕조를 떼어버리고 목욕은 1주일에 한번 공중탕에 가서 한다고 하였다.

<표 2>는 생애구술자들의 출생과 결혼 외부의 사건들과 연결하여, 첫 번째 층집 거주 시작시기, 현재의 주거유형 거주시작 시기와 규모, 각종 가전기기 사용시작 시기와 침대와 식탁의 사용시작 시기, 온수바닥 난방 시작 시기 등을 외부 사건과 연관하여 연도별로 표시하였다.

L씨의 2008년형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부엌수납장이 부족한 점은 많이 개선(사진 8, 9)되어 있으나, 온수바닥 난방이기 때문에 열손실 문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에 문이 있고, 바닥을 타일로 마감(사진 7)하였으며, 부엌 바닥 한쪽에 단지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사진 13). 저장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면서도 김치냉장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부엌의 규모는 전체 평면크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듯 보였는데 바닥을 타일로 마감한 것은 부엌은 냄새가 많이 나며 물을 쓰는 곳이라는 의식이 더 작용하고 있었다. 세탁기는 여전히 화장실 안(사진 10)에 배치해 두고 있는데 이는 가사작업의 효율성 보다는 사용 시의 편리성에 더 중점을 둔 결과로 보여진다. 문은 물론 문틀조차 없이 시멘트만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실내장식을 하게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벽체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세탁기를 욕조와 샤워기가 있는 욕실에 두지 않을 수 없는 1970-80년대 층집과 마찬가지로 가전기기 배치를 한 것은 가사작업의 능률면 보다는 사용상의 편리를 더 고려)하여 가전기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2008년 형 초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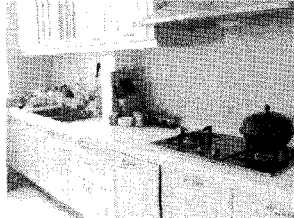
<표 2>구술자의 주거시설설비 사용

사건	1930	1940	1945	1950	1960	1965	1970	1980	1983	1990	1995	2000	2010
항목	일본패망		공산주의 모택동				등소평		직장주택				
출생 및 결혼	32L,34KY,36KS,39P,41J			53L,51P,55KY,60KS,68J				개혁개방		배급중지, 매입가능			
마지막 평집			1958]중국집		67 KS러시아집 46m ²		90L조선집90m ²						
첫 번째 층집			62KY러시아집20m ²		71P러시아집16m ²		70KS 42m ² 78J 46m ²		81P40m ² 82KY 40m ²		95L 100m ²		
현재 주거									90P40m ² 층집 03KY90m ² 05J95m ²		98KS초고층250m ² 08L200m ² 초고층		
냉장고					67KS				86KY,90J,P,L				
전기발של					71L 78J		82P		89KY 90KS				
전자레인지									89KY 90KS 95P 99L				
가스레인지			62KY		78J				90P,L				
식탁					71L 78J		82P 85P		98KS				
TV							81KY		85P,L,KS,J				
온장고					67KS				91L		03KY 05J		
세탁기					67KS				85KS,J,P 90L				
침대			55KY 60P		67KS		78J						
온수바닥난방											03KY 08L		

[연도/구술자명] :KS-부유,KY-중간,J-중간,L-중상,P-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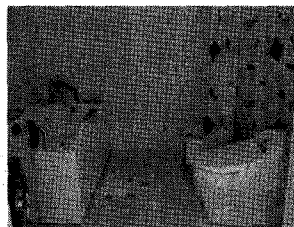
<사진 7> L씨의 초고층아파트 부엌(2008)



<사진 8> L씨의 초고층아파트 부엌작업대(2008)



<사진 9> L씨의 walk-in 수납장(2008)



<사진 10> L씨의 안방 화장실(2008)

아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공간과 장식을 입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세탁기를 욕실 안에 두게 만드는 등 세탁행위보다는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기 편한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8)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세탁기를 욕실에 두는 것도 욕실 이외에 적당한 공간이 없고 관습과도 관련이 있다(이영식 외, 2008)고 하였으나 할빈은 최신 아파트에서조차 욕실에 두는 것으로 보아 사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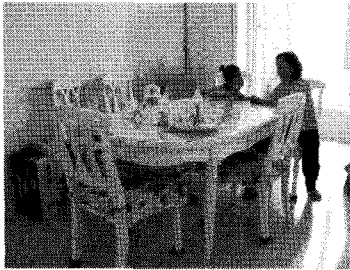
이는 한국의 최신 아파트의 부엌이 개방적이고 거실과 같은 장식개념이 도입되어 바닥재가 통일되어 있는 점과 다르며, 가사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탁기를 다용도실에 두거나 부엌작업대에 빌트인하는 경향과도 차이를 보이는 가전기기배치 방식이므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할빈 지역 조선족의 침대 사용 시기는 대단히 빠르다. KY씨는 1955년도부터 침대를 사용했다고 하였다. 구술자들이 한국보다 침대생활과 식탁 사용 등 입식생활을 일찍 경험하는 것은 마루바닥과 폐치카가 특징인 러시아집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스레인은 KY씨가 62년도부터 사용했고, 냉장고는 KS씨가 67년도부터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전자레인은 KY씨가 89년도부터 사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식기를 덥히고 소독을 하는 온장고의 사용을 67년도부터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부엌이 좁기 때문인지 한식을 주로하고 저장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김치냉장고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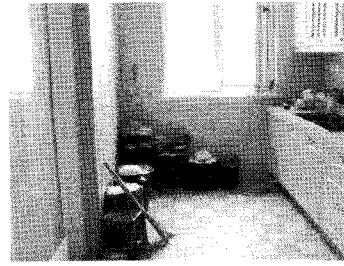
3. 생활문화와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

구술자의 생애과정을 통해 나타난 주거생활의 변화에 대해 특징적으로 나타난 식생활에 관한 내용, 제사지내기, 침실배분과 공유의식 등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집변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술자들이 중국에서 살아가면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진 11> L씨의 초고층아파트 식당(2008)



<사진 12> L씨의 초고층 아파트의 부엌

중국 속에서 조선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한 생활 문화의 고유성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지의 여건과 많이 동화된 부분도 있었다. 제사에 관한 것은 동화로, 식생활과 관련된 것은 문화접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침실배분과 공유의식은 시대변화에 따른 단순한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식생활 행위와 주거의 사용

구술자들은 밥을 누구와 같이 먹는다는 것에 특별한 위계 의식이 없었다. 층집에 거주하기 전까지는 둥근 밥상에 모두 둘러 앉아 식사를 하였고, 남녀차별이나 장유외의 구분의식은 없었다고 하였다. 음식 중 지금도 만드는 것은 김치이며, P씨는 92년까지 된장을 담갔고, KY씨는 된장과 간장을 지금도 담그는데 오히려 김치는 2003년부터 사먹는다고 하였다. J씨는 간장은 80년까지 담갔고 된장은 2005년까지 담갔으며 고추장은 지금도 담근다고 하였다. 교사였던 KS씨는 1967년부터 촌에서 가져온 김치와 장류를 사 먹었고, 1998년부터 가정부가 있어서 가정부가 만든다고 하였다. 평생 가정주부였던 L씨는 현재 78세 인데 가정부를 데리고 지금도 김치를 비롯하여 모든 장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하였다. 특히 거의 언제나 한식을 먹는다고 하였다. 다른 구술자들은 가끔 중국식 볶음채를 해 먹는다고 하였는데 식생활이 가장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문화접변이 일어난 예로 일반화 할 수 있다. 즉, 즉석음식을 즐기고, 볶음채 위주로 음식을 장만하는 중국의 식생활에 동화되었다기 보다는 저장식품을 즐기는 한국 고유의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볶음채를 식생활에 부가하는 문화접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저장식품을 들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의 한족을 위한 층집 생활에 있어서 부엌의 공간구성과 시설설비는 조선족의 적응을 강요할 뿐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식사는 남녀장유 구분 없이 둥근 밥상에 모두 둘러 앉아 먹다가 식탁에서 식사를 한 것은 L씨는 1971년부터, KY씨는 1982년부터, J씨는 1978년부터, KS씨는 1998년부터, P씨는 1985년부터 사용했다고 하였다. 특이한 것은 층집에 가장 먼저 이사 간 KS씨는 둥근상을 거실(客廳)에 두고 식사를 하

다가 가장 나중에 식탁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모두들 둥근 밥상을 없앴지만 L씨는 지금도 친구들과 놀이(게임)를 할 때는 둥근 밥상을 편다고 하였으며, 식당의 한 쪽에 접어서 세워둔 것을 볼 수 있었다(사진11). 저장식품 보관은 주로 냉장고나 부엌에 붙어 있는 베란다를 이용하는데, 2003년에 입주한 온수바닥 난방 층집에 사는 KY씨는 베란다[陽臺]에 두지만, 2008년 입주한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L씨는 베란다가 없어서 식당과 안방에 냉장고를 2개 사용하고 있고, 부엌 한쪽에 저장음식 단지들을 들 수밖에 없으며(사진 12), 고사리, 나물 등을 서남쪽을 향한 방의 창가에 펴 놓고 말리고 있었다. 현재의 집에서 실내바닥이 모두 따뜻한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족을 위한 할빈의 층집과 아파트는 조선족의 생활문화와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

2) 장례, 제사와 주거의 사용

구술자들은 장례는 식당에서 지내며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식당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였다. 시신은 화장하여 골함에 두고 3년간 제사를 지낸 후 송화강 같은 곳에 뿌린다고 하였다. 구술자 중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었음에도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의식은 남아 있지 않았다. 중국식 평집에 살던 1950년대에는 어른이 계시는 남캉에서 제사를 지냈다고(KS씨)하였다. 남편이 사망한 KS씨는 남편의 3년 상을 냈고 제사를 3년간 지냈으며, 차례 상을 차리고, 길림성에 산소가 있다고 하였다. J씨는 시아버님을 길림성에 산소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으나 시어머니는 3년 상 후 제사도 지내지 않고 골함도 없애버렸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4대제사에서 2대 제사로 축소되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자정에서 해가 진 후 저녁시간에 지내는 것으로 변화하는 했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달리, 조선족의 장례와 제사의식은 중국인들의 현실주의에 생활문화가 상당부분 동화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10년간의 문화혁명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일면서 민간종교의 부활과 민속의례에 대한 일반인들의 열망이 표출되었다. 1987년 민속개혁운동과 민속현대화에 따라 장례 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무덤을 만들 수 없으며, 뼈가루를 항아리에 담아 가족이 경작하는 밭 한귀퉁이에 묻어버린다. 매장이 끝나면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때 오직 2개의 식탁만이 허락된다. 문헌 곳은 1년에 한번 청명 때 방문한다. 장례는 2-3일간 치러지는데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야한다는 교시에도 불구하고 농담과 즐거운 놀이로 채우며 조위금이나 받은 물건을 적당히 과시하고, 여유가 있는 집은 영결식 전날 극단을 초청하여 희극을 공연하거나 비디오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인이 세상에 남은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치르게 한다(김광익,1990). 할빈 조선족의 장례와 제사는 한국식보다는 중국식에 더 동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3) 침실배분, 공유 의식과 주거의 사용

구술자들의 생애과정에서 좁은 집에 많은 가족이 함께 살거나 친척이 와서 기숙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집에 살 때도, 평집에 살 때도 좌식으로 생활할 때는 이불 1채를 4명이 덮었다(P씨)고 하고, 한 개의 칸에 7명도 잤으며, 2개의 칸을 사용할 경우는 남강에는 어른이 자고, 북강에는 아이들이 자는 등 남강을 좀 더 중요한 방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다(KS씨).

KY씨는 1955년 결혼을 해서 9㎡ 단칸방에 침대 2개를 놓고, 한개는 시동생이, 한개는 남편과 1인용 침대에서 같이 잤다고 하였다. L씨는 1953년 결혼해서 1개의 칸에서 시부모와 자기네 부부가 가림막을 치고 잤다고 하였다. 구술자들이 살아온 집은 작기도 하지만 강[炕]이라고 하는 개방된 중국집의 생활공간을 경험하면서 공유하는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남녀 상하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친척들의 더부살이를 당연시하는 혈족중심주의가 지배했던 시기까지는 침실 구별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KY씨는 결혼한 딸네 부부가 방이 2개뿐인 층집에 같이 살았고, P씨는 방이 2개뿐이고 마루방이 있는 러시아집에서 친정어머니를 10년 모셨으며, J씨는 딸과 아들 둘과 본인이 3채의 집을 바꾸어 가며 필요에 따라 사는 등 집과 공간의 상징성보다는 실용적인 편의주의가 더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KY씨는 현재 사위가 사준 딸 명의의 집에서, J씨는 아들 명의의 집에서, L씨는 큰아들이 사준 손녀딸 명의의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직계가족 간의 주거 공유의식이 폭넓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집은 결혼한 자녀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한 확대가족생활을 위한 안식처로서 자산소유의식뿐만 아니라 공간사용의식까지 실용적인 연대의식 속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S씨의 아들은 한족과 결혼하고 딸을 하나 낳았으나 이혼하여 현재는 손녀딸과 함께 KS씨와 같이 살고 있고, J씨는 둘째아들이 한족여성과 결혼할 때 한족은 깨끗하지 않고 돈을 좋아한다고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

고 하였다. KY씨, P씨, L씨는 자녀들이 모두 조선족과 결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흑룡강성의 조선족 아이들이 길림성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조선말에 익숙지 못하고, 한족 친구들과 사귀고 한족학교에 다니고 한족과 구분 없이 직장에 다니므로 손자손녀 세대에는 한족과의 결혼이나 동화가 당연할 것으로 스스로 전망하였다.

할빈지역 청소년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조복희 외, 2004)에 의하면 조선족 비율이 낮은 할빈의 도시환경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족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한족과의 문화적 접촉으로 조선말을 사용하던 청소년의 언어적 정체성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조선족 청소년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조복희 외, 2004)이라고 하였다.

V. 결론

이 연구는 중국 할빈지역 조선족에 관한 질적 연구로서의 생애과정접근의 유용성을 활용하였다. 주거조절이론의 인식론적 입장에서 해외거주 한국동포의 주거의 사용과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접변 현상을 파악하였다. 사전조사와 면담, 촬영, 집을 방문하여 평면채취를 하는 등 10일간의 조사과정 중에서 60-70대 노인 5명으로부터 2010년 5월28일부터 31일까지 구술을 들었으며, 연구자가 대주제와 소주제에 맞게 정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할빈지역 조선족의 주거소유, 시설설비, 난방과 취사도구, 생활문화의 동화와 문화접변 등 주거의 사용과 조절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의 사용과 조절에 중요한 주거소유의식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직장에서 분배받은 집을 직장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내 집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매입한 때부터를 소유로 규정하는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1995년 개혁개방 때 직장에서 분배받은 층집을 매입하여 모두 소유주가 되었으며, 현 거주주택은 본인(KS씨), 남편(J씨, P씨), 큰아들(L씨), 딸(KY씨), 손녀(L씨)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본인소유와 마찬가지로는 가족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들이 더 중요하나 아들이 없으면 사위를 잘 두어야 한다는 등 본국에서 떠나 해외동포로 거주하면서 확대가족까지 포함하여 가족연대의식이 투철해야했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시설설비와 관련된 주거의 사용과 조절을 보면 실내장식을 모두 소유주가 해야 하는 중국의 층집 보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KY씨를 제외하고는 중국식으로 제공된 칸막이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관에 바닥차이가 없고, 부엌은 좁고 수납장이 부족하며 타일로 바닥을 마감하여 슬리퍼를 사용, 세탁기는 화장실 안에 배치, 최근 신축 아파트 일수록 한국식 저장식품을 둘 곳이 없는 등 주거부 적합성을 보이고 있다.

KY씨(2003년), L씨(2008)는 이미 온수바닥 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J씨와 P씨는 전혀 불편을 말하지 않았으나 아직 라디에터를 사용하고 있는 구술자 중 KS씨는 전기온돌로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바닥난방이 조선족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난방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베란다가 없는 초고층 아파트 도입으로 한식 위주의 식생활에 필요한 저장식품을 둘 차가운 공간이 더 필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소독하고 태우는 온장고는 있으나 김치냉장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부엌, 수납공간, 저장공간에 대한 배려를 조선족 주거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시간을 정해 놓고 지역에서 일괄 난방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수는 개인적으로 전기온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장실의 욕조이용과 일상적 샤워를 일반화시키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고, 매일 샤워를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므로 매일 샤워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목욕은 1주일에 한번 공중탕을 이용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탁기 놓을 곳이 없어 화장실에 두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손세탁도 자주하므로 세탁장소와 세탁기 놓을 장소가 별도로 필요하다.

3. 생활문화의 동화 및 문화접변과 관련된 주거의 사용과 조절을 보면, 식생활문화에서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일정부분 중국식이 가미되어 있다. 따라서, 식생활은 문화접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장례와 제사행위는 중국식으로 변화되어 있으므로 동화로 이해해야하며, 침실배분 및 공유의식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달리 친가 외가, 아들 딸 구분 없이 친족중심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바, 한국의 산업화 이전 혈족중심 전통가족 의식이 주거생활지원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할빈이 도시지역으로서 한족과 동화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동북3성의 대표도시인 연변, 심양, 할빈 중에서도 가장 빨리 생활문화의 동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해외동포의 삶의 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같은 중국 동포라고 하더라도 동북3성의 지역생태적 특성에 따라 일반화가 가능하지 않을 만큼 지역적인 특성이 있음을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할빈 거주 조선족의 주거의 의미, 주거의 사용과 주거조절의 특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규범적 주거결함을 줄이고 주거부적합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정교한 문제해결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성우·이원석(2001). 중국 요녕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민가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11), 117-124.

김종영·김수인·김승제·박용환(1996).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1), 95-103.

김종영(2000). 중국 요녕성 조선족 도시단독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1), 125-135.

김종영(2002). 중국 연변 조선족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2), 65-71.

유계숙·최연실·성미애 편역(1999). 가족학 이론. 서울:문음사.

이영심·최정신(2007).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거 및 주생활-제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7), 1-15.

이장섭(1993). 해외 한인의 문화접변. 민족과 문화, 1, 77-93.

조복희·박태수·한세영(2004).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심양과 할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13-122.

조복희·이귀옥·박혜원·이주연(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조성희(1996).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79-91.

조홍윤(2003). 한중일 세나라의 전통 생활문화 비교. 민족과 문화, 12, 23-34.

최금화(2002). 조선족과 한족의 주거공간사용방식 및 요구에 대한 비교연구-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길 시 집합주거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형욱·양세화·전남일(2009a).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 I-주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가정

- 관리학회지, **27(1)**, 45-60.
- 홍형옥·양세화·전남일(2009b).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 II-주거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55-172.
- 홍형옥(2010). 생애구술을 통해 본 중국 할빈 지역 조선 족의 주거의 의미 -주거유형 경험과 경로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67-181.
- Arias, E. G.(ed.)(1993).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Newcastle upon Tyne: Athenaeum Press Ltd.
- Morris, E. W. and Winter, M.(1975.2).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88.
- Reiter, H.(2009). Beyond the equation model of society the postponement of motherhood in post-state socialism in an interdisciplinary life-course perspective.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2(2)**, 233-246.

- 접수일 : 2010년 07월 02일
- 심사일 : 2010년 08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15일